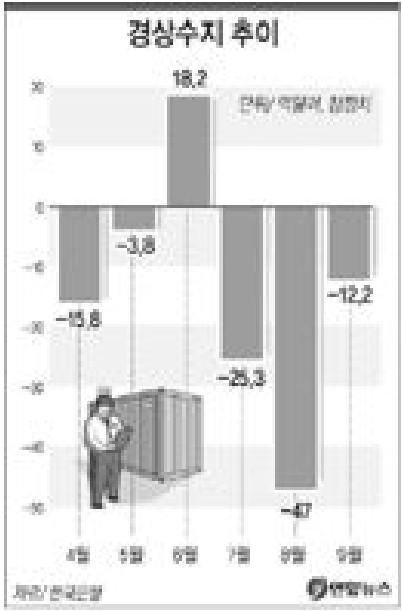


10월 경상수지 10억달러 흑자



韓銀 전망 ... 9월 12억달러 적자서 한달만에 반전

한국은행이 10월 경상수지가 10억 달러 이상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에 9월 경상수지는 12억2천만달러의 적자를 냈지만 전달보다 적자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양재홍 행은 국제수지팀장은 30일 9월 국제수지를 발표한 이후 설명회에서 “현재 나온 기초자료를 토대로 10월 경상수지를 전망해 보면 유가하락 효과가 반영돼 상품수지는 흑자로 전환하는 한편 환율 상승으로 해외여행이 줄고 해외 교포 송금이 늘어나면서 여행 및 경상이전 수치도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0월 경상수지는 10억 달러 또는 그 이상의 큰 폭 흑자도 가능한 것으로 전망된다고 그는 내다봤다.

양 팀장은 “10월 원유 도입 단가가 배럴당 95달러인데, 11월과 12월 원유도입 단가가 더 떨어지면 경상수지는 더 개선될 것”이라며 “10~12월 석 달간 경상수지 흑자 폭은 40억 달러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유가와 연동한 석탄, 가스 등의 수입감소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여행수지 개선 등 긍정적 요인이 부정적 요인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은이 이날 발표한 ‘9월중 국

제수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는 12억2천만 달러 적자를 내 8월의 47억 달러보다 적자 규모가 크게 줄었다.

경상수지는 작년 12월(-8억1천만 달러)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다 6월에 18억2천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으나 7월(-25억3천만 달러)부터 9월까지 3개월 연속 적자를 나타냈다. 올해 1~9월 누적 경상수지 적자는 138억 달러다.

경상수지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는 중화학공업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한데다 유가하락으로 수입은 감소함으로써 적자 규모가 전달의 28억 달러에서 7억6천만 달러로 축소됐다.



여행사진 수상작 전시

대한항공 광주지점(지점장 최수영·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은 30일부터 1주일간 광주시 동구 지하철 금남로4가역 메트로 갤러리에서 ‘제15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열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생산자 - 소비자 물가 상승률 격차 3분기 6.3%P ... 외환위기 이후 최고

대한상의 보고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물가상승률 격차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작성한 물가지수 보고서를 통해 “올 3분기 생산자 물가상승률은 12.1%,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5.6%로 격차가 6.5% 포인트를 기록했으며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2분기의 격차인 5.8% 포인트를 넘어선 수치”라고 30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두 물가는 올 초부터 동반 상승을 했지만 국제 유가와 원자재가 등 수입물가 상승에 따라 생산자 물가가 상대적으로 더 가파르게 뛰면서 지난 1월 0.3% 포인트에서 지난달 6.2% 포인트까지

격차가 커졌다.

대한상의는 최근 환율급등 요인까지 감안하면 생산자 물가 상승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기업 채산성 약화와 소비자 물가의 추가상승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두 물가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원가 상승분을 기업이 자체적으로 흡수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업체들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기업의 제조원가 부담이 판매가격으로 전가되면 소비자 물가 상승압력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물가상승률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환율 안정과 자원보유국과의 협력 강화, 가계소비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9월 예금금리 6%대 7년여만에 최고 수준

지난달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 평균금리가 6%대를 나타내 7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9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동향’을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 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전달보다 0.14%포인트 오른 6.05%로, 2001년 2월(연 6.09%) 이후 가장 높았다. 9월 리버브러더스 사태 이후 채권발행이 어려워지자 일부 은행이 특대예금을 취급하면서 정가예금 금리를 중심으로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정가예금 평균금리는 전달보다 0.

23%포인트 오른 연 6.00%를 나타냈으며 정기예금 신규 취급액 가운데 연 6.0% 이상 이자를 주는 예금비중도 8월 35.6%에서 9월 45.2%로 높아졌다.

대출 평균금리도 전달보다 0.13%포인트 상승한 연 7.44%로, 2001년 8월(7.5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전달보다 0.23%포인트 오른 연 7.09%,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0.10%포인트 오른 7.60%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연 7.45%로 전달보다 0.10%포인트 올랐으며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09%포인트 상승한 7.25%를 나타냈다.

‘알박기 소송’ 1심 승소판 건설사 입주자 모집 가능

민관합동추진단 46개 규제개혁 과제 해결 방안

올해 말부터 건설사들은 ‘알박기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1심에서 승소하면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또 빌트인 가전을 모델하우스에 시공해 전시할 수 있으며 신도시 주변에서 급지매은 물류단지사업도 허용될 전망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구성한 민관합동추진단(공동단장 이성규 국경위 규제개혁담당장·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건설·개발·지역현안 등 3개 분야에 걸친 46개 규제개혁 과제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설사업으로 개선 = 보고 내용에 따르면 건설사 ‘알박기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돼 올 연말부터 시행된다. 이는 주택건설 예정지에 대한 ‘알박기

로 인해 건설사들이 사업지역과 소송비용부담 등 애로를 겪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추진단은 설명했다.

추진단은 시스템 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의 모델하우스 전시를 금지하고 전체 공판물이 40%에 도달한 이후에야 설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규제도 해소하기로 했다.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 = 개발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됐던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추진단은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와 관련, 사업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항목만 평가하고 심의를 20일 내에 완료하도록 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분기별로 개최되던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수시 개최방식으로, 안건심의도 3주 내에 처리하도록 고쳐졌으며 한달 이상 소요됐던 교통영향평가 제정의도 10일 이내에 종료하고 추가적 요구는 금지하도록 했다.

韓銀-美 FRB 300억달러 ‘통화스와프’란

원화 맡기고 달러 빌려 써 금리도 3% 수준 ‘초저금리’

한국은행이 30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RB)와 맺은 통화스와프 300억 달러는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자금이다.

통화스와프란 미 FRB에 원화를 맡기고 그에 상당하는 달러를 가져오는 교환 방식이다. 원화는 제한없이 발권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보유의 환이 늘어난 것으로, 기존 외환보유액과 함께 국내 실수로 달러자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스와프입찰은 은행권에 공급 = 한은은 이 계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달러를 그동안 한은이 국내 외국환은행에 스와프경쟁 입찰로 공급하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다.

현재 한은은 매주 화요일 스와프 경쟁입찰로 국내 은행에 직접 달러를 풀고 있다. 달러가 필요할 은행이 입찰에 참여해 달러 등 입찰조건을 제시하면 한은이 가장 유리한 조건인 은행에 달러를 빌려주고 원화를 받는 방식이다.

한은은 경쟁입찰에 2일 앞서 미국 측에 입찰 규모를 통보하고 입찰이 끝나면 실제 낙찰금액만큼 달러를 가져오게 된다. 만기는 84일 물이 내에서 자유롭게 빌려줄 수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이후 국내 은행들이 달러를 상환하면 이를 FRB에 입금해 한도를 채워놓으면 된다. 입출금 횟수에 제한은 없는 것으로 다음달부터는 스와프 입찰에 미 달러화를 사용할 수 있다.

◇통화스와프 금리 조건은 = 통화스와프 거래로 달러를 빌려오는데 지불하는 금리는 하루 짜리 달러 대출금리인 ‘오버나이트 인덱스 스와프(OIS)’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이광주 한은 부총재보는 “거래마다 협의로 정해진다”며 “OIS에 ‘플러스 알파(α)’를 하기 때문에 높은 금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재 3개월물 OIS는 0.8%선이다. 최근 FRB가 산업은행을 기업어음(CP) 직접 매입대상으로 선정하면서 내건 금리 조건이 OIS에 2.0%포인트를 더한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한은의 통화스와프 금리도 3% 안팎의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기존 은행들을 상대로 한 공개 경쟁 입찰에서 얻는 금리 차익만큼만 그대로 FRB에 넘겨주면 되기 때문이다. 국내 외화자금 사정에 따라 한은의 금리 차이가 좁게 되면 FRB의 ‘플러스 알파’도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대학생 농촌 일손돕기

농촌사랑 대학생 자원봉사단원들이 29일 장성군 황룡면 일산동마을에서 방울토마토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농협전남지역본부는 농산물 수확철을 맞아 대학생 봉사단과 함께 농촌돕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네오개발(주)	네오개발(주) 신인/경력사원 공개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02	062-361-2610
오페라웹스페이스소프트센터	정규직 안내데스크 여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02	062-956-9405
씨에이치솔루션(주)	(주5일/고정급152만)SK텔레콤 CRM 송정리센터 멀티상담원	고졸/경력무관	2400~2600	11/03	02-456-9799
(유)세서울고시학원	사무직(상담, 접수)정규직원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11/03	062-514-4560
대성애드	정규직 실사출력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04	062-374-1727
(주)H&T	[연2400만원/주5일]SKT 114 상담원(정규직)	고졸/경력무관	2400~2600	11/04	062-350-6333
두메푸드시스템(주)	정규직 총무, 인사, 사무관리 직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05	062-571-6000
미디어피자광주서점	[상무직]피자제조, 주방보조, 출서빙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1/05	010-9120-8976
인피플	피견아웃소싱 광주시사 정규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06	02-594-2244
남성정보	실력있는 Network 기술경력사원	대졸/경력6년	회사내규	11/07	062-221-5206
(주)발컴	[광주]발컴(시)설관리 설비분야 경력사원	초대졸/경력3년	2800~3000	11/07	02-2280-5664
(주)다음광주센터	총무 마케팅(포털사이트)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09	062-430-9690
(주)삼익건설	[전남]토목시공 및 공무	고졸/경력무관	3000~3200	11/09	061-723-6496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폭등 주가... 증시 역사 새로 썼다

상한가 종목 839개 '물만 고기만'

30일 증시가 사상 최대로 폭등하면서 이에 따른 신기록도 쏟아졌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달보다 115.75포인트(11.95%) 오른 1,084.72에 마감, 기존 사상 최대 상승률은 8.50%(1998년 6월17일), 상승폭인 93.20포인트(2007년 8월20일)를 동시에 갈아치웠다.

코스닥지수도 상승률 기준으로 역대 1위에 올랐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30.46포인트(11.47%) 오른 296.05로, 직전 사상 최대 기록인 2000년 5월25일의 10.46% 상승률을 경신했다.

두 시장 모두 내린 종목은 찾아보기 힘든 '물만 고기만' 장세였다. 코

스피시장의 상승 종목은 839개로 1998년 1월30일 867개 다음으로 많았고, 375개 종목이 상한가에 올라 1997년 1월11일 집계 이후 24위에 올랐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상승 종목 992개, 상한가 종목 464개로 모두 개장 이래 가장 많았다. 두 시장의 상승종목은 1천831개, 상한가 종목은 839개에 달했다. 시가총액은 하루새 60조원 이상 불어났다. 이날 두 시장의 시가총액은 597조4천756억원으로 전달 533조7천710억원에서 63조7천46억원 증가했다. /연합뉴스

